

고등학생의 성폭력 경험과 인식¹⁾

신 효 식* · 이 경 주**

전남대학교 가정교육과

A Cognition and Experience of Sexual Violence of the High School Students

Shin, Hyo-Shick* · Lee, Kyeong-Ju**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ognition and experience of sexual violence and to present the influential factors of the cognition of sexual violence. The subjects were 835 high school students living in Kwangju and Chonnam. The data analysis used Mean, Standard Deviation, T-test, F-test,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major findings is as follows:

1. There are meaningful differences in the experience of sexual violence between male and female adolescents.
2. There are meaningful differences in the cognition of sexual violence in sex, sex-role attitude, experience of obscene materials and sex education.
3. The variables which affect cognition of sexual violence is sex-role attitude, sex and experience of obscene materials that were explained about 10%.

주제어(Key Words) : 성폭력(sexual violence), 성역할태도(sex-role attitude), 음란물 경험(experience of obscene materials), 성교육(sex education)

1) 이 논문은 2001년도 전남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I. 서 론

최근에 이르러 청소년의 성폭력 문제는 개인적 차원을 넘어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성폭력 범죄 가해자의 나이를 분석해보면 10대 청소년에 의한 성폭력 범죄율이 지난 30년간(1966-1995년) 내내 1-2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다른 연령대에 비해 청소년의 성폭력 범죄율의 증가속도가 가장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8). 또 한국성폭력 상담소(1996)의 통계에서는 19세 이하의 성폭력 피해자가 전체 피해자의 50.5%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 성폭력 범죄증가와 관련하여 김용미와 김현옥(2001)은 청소년의 성폭력 문제해결을 위한 예방책과 체계적인 연구가 전개되어야함을 역설하였다. 이들은 실증연구를 통해 고교생의 2%(성행위 강요)에서 14%(신체일부 밀착)가 성적 피해를 경험하였다고 하였다. Abbey, Ross, McDuffie와 McAuslan(1996)도 청소년기는 다른 발달단계보다도 성폭력의 피해자가 되기 쉬운 시기라고 지적하여 이에 관한 연구가 요구된다고 하였다.

청소년 성폭력은 피해자뿐 아니라 가해자 쌍방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즉, 청소년 시기의 가해 경험은 청소년기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윤간 등의 집단성향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강하고 그 가해대상은 유아, 청소년은 물론 성인 여성까지도 포함된다(문애희, 1997). 청소년기 성폭력 가해경험자는 성인이 되어서도 반복적으로 성폭력 가해행위에 노출되며, 직장내 성폭력 혹은 부부폭력을 행사하는 성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성폭력의 피해 경험은 학업중도포기, 정신적으로 불안, 우울, 좌절감, 약물복용에 시달리거나 순결상실감에 대한 자기 비하, 가해자에 대한 복수심, 증오 등의 감정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개인의 삶이 폐쇄됨과 동시에 미혼모 문제, 가출 등이 나타날 수 있다. 나아가 결혼 후 부부관계의 부적응, 가족간의 관계손상, 살인까지 일어나는 사회문제로 발전하게 된다(성폭력상담소, 1992). 또한 많은 성폭력 피해자가 무력감과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성폭력에 계속 노출되어 반복 피해를 당하기도 하며, 스스로 불량학생들과 어울리거나 파괴적인 분노 표출로 성적 방종이나 윤락행위에 빠져들기도 한다(조중신,

1997).

지금까지 전술한바와 같이 청소년의 성폭력 문제는 현대사회에 와서 날로 증가추세에 있으며, 가해 경험이나 피해경험 모두 후유증으로 인한 심각성이 매우 큼을 알 수 있다. 이는 발달단계상 청소년기는 이성애에 대한 호기심 및 성적인 관심이 높아지는 시기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이성교제 및 성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제반여건이 취약한 상황이라는 제한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청소년의 성폭력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이 요구되는데, 이중에서도 특히 청소년에게 성폭력 개념에 대한 인식을 확실하게 정립시켜주는 것이 선행요건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전개된 청소년 대상의 성폭력 연구는 실태분석에 대다수 집중되어 있어서, 청소년 성폭력 문제해결의 방안을 제시하는 데는 다소 미흡하다고 사료된다. 이정권(1998)에 의하면 청소년의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사회가 공유하고 있는 성문화와 성폭력에 대한 인식, 그리고 성불평등의 정도 등을 중심으로 문제에 접근해야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먼저 청소년들의 성폭력에 대한 인식 측면을 중심으로 접근해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청소년 시기중 고교생을 대상으로 성폭력 경험을 살펴보고 성폭력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분석 결과는 이에 관련된 자료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청소년의 성폭력 인식을 파악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고등학생들이 바람직한 성 정체감을 발달시킬 수 있도록 해주며 동시에 청소년의 성폭력 문제를 예방 및 치료하는데 부모교육과 학교교육의 중요성을 거듭 확인시켜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연구의 의의를 둘 수 있다. 이상의 연구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고등학생 남녀의 성폭력 가해/피해 경험의 실태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고등학생의 성폭력 인식은 배경변인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고등학생의 성폭력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은 무엇인가?

II. 이론적 배경

1. 성폭력 개념 및 경험 실태

성폭력의 초기 연구는 1950년대 정신의학, 심리학, 생물학에서부터 시작되어 왔다. 최근, 성폭력을 바라보는 관점은, 정신병리적 관점, 하위문화적 관점, 여성주의적 관점, 거시적 사회학적 관점 등의 네가지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 그런데 성폭력의 개념은 각 개인의 성에 따라, '성'과 '폭력'에 대한 경험인식에 따라서, 혹은 가치관에 따라서 성폭력의 개념이 달라지고, 어떠한 행위들이 친근감이나 애정의 표현이 되는지에 대해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명확히 규정짓는 것이 간단하지 않다(박순주, 1996).

일반적으로 성폭력이란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성적 행위를 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강요, 위압하는 행위 및 성행위를 유발시키는 선정적 언어로 유인하는 행위를 말한다(한국여성개발원, 1992). 그러나 여성학적 접근에서는 이보다 포괄적으로 정의를 내리는데 성폭력이란 사회적, 신체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남성이 여성에 대한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뿐 아니라 동성간에 이루어지는 어느 일방의 성적 자기 결정권 침해, 그리고 양성간의 교섭관계가 상시적으로 있는 가정내에서의 어느 일방의 일방에 대하여 행해지는 가정내 폭력현상도 포함시키고 있다.

성폭력 유형을 보면 김성희(1998)는 크게 시각적, 언어적, 신체적 유형의 세가지로 구분하였고, 이를 다시 나누었는데 시각적 유형은 신체 일부 쳐다보기, 의실적 그림이나 글을 보게 하기로, 언어적 유형은 의모나 옷차림을 성적으로 평가하기, 음담패설하기, 신체적 유형은 신체 일부의 밀착/접촉, 겨안기/키스/성교 등으로 분류하였다. 한국여성개발원(1992)은 성폭력 유형을 성적 추행, 성기노출, 강간 미수, 강간, 성적 가혹행위, 음란물 보이기/음란물 제작에 이용/윤락행위 강요, 음란전화 등으로 구분하였다.

우리 사회의 문화적 배경상 '성'이나 '성폭력'을 주제로 한 본격적인 연구가 수행되지 않고 있고, 성폭력 피해 경험의 신고도 매우 낮은 상황이므로 연구가 제한적이지만 최근 1990년대 이후로 이에 관련된 연구들이 집중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성폭력의 실태를 보면 Small과 Kerns(1993)는

청소년 초기 및 중기에 해당하는 여자 청소년의 20%가 지난 1년간 성폭력을 경험하였다고 하였다. 한국 성폭력 상담소(1996)의 통계를 보면 청소년들의 성폭력 피해경험과 가해경험을 조사한 결과, 16%가 성폭력 피해 경험을 호소하였고, 지하철이나 버스에서의 추근거림, 성기노출, 음란전화 등의 성추행과 관련하여 가해자는 주로 모르는 사람이 많았고, 피해장소는 지하철이나 버스 안, 본인의 집, 학교나 학교 주변 등 우리가 안심하고 다니는 곳에서의 피해가 49.4%나 차지한다. 피해자들은 가벼운 성추행일지라도 심리적인 불안 상태를 갖는다고 하였다. 성폭력 가해경험은 3.48%로 가해유형은 대부분 성추행에 해당된다. 성폭력 가해 후, 죄책감이 들었다고 생각한 이는 22%에 불과하였고 나머지는 아무 느낌이 없었다. 재미가 있었다, 혹은 피해자가 이를 재미있게 생각했을거라고 40%가 응답하였다. 대부분 가해자들이 성폭력 행위에 대하여 심각하게 여기지 않음을 지적하였다. 또 다른 연구(가족과 성상담소, 1995)에서는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성폭력 유형으로 음담패설이 48.6%, 고의로 신체 접촉을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남학생이 26.7%, 상대가 원하지 않은데 키스나 포옹을 한 적은 25.2%로 나타나 남학생들이 성희롱을 쉽게 한다고 지적하였다.

성폭력의 피해 영향을 고찰해보면 크게 네가지 측면을 들 수 있다. 첫째, 심리적 측면에서 불안과 두려움, 우울증 등이 나타나게 된다. 이것이 심하게 되면 자포자기, 자살시도, 자존감 저하 등이 장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둘째, 사회적 측면에서 학습장애, 학교 등교 거부증, 집중력 상실 등이며 나아가 가출, 남성에 대한 혐오감, 무관심 등으로 고립될 수 있으며 결혼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셋째, 신체적 측면에서 피해직후 임신 또는 임신에 대한 두려움, 타박상, 두통, 지속적인 출혈, 생리중단, 세균 감염, 신체적 상해 등 신체적 증상을 호소할 수 있다. 넷째, 성적 기능상의 측면에서 성 불감증, 성적 불안감, 성행위에 대한 혐오감, 성적 죄의식 등으로 성적 역기능이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다(한국여성개발원, 1992; 이원숙, 1995). 또 다른 연구(한국여성개발원, 1992)는 성폭력의 피해 영향을 조사하였는데 정서적, 신체적, 성적, 사회적, 가족관계에 대해 피해 영역별로 초기/장기로 나누었다. 초기 영향은 89.5%가 정서적 영향을, 80.2%가 신체적 영향을, 77.1%가 사회적 기능의 영향을, 32.3%가 성적 기

능과 가족관계의 영향을 호소하였다. 장기영향은 신체적, 사회적, 가족관계 영역에서는 초기에 비해 다소 호소율이 감소되었으나, 성적 기능에서는 거의 2배였고 정서적 영역은 만성적 증상의 호소율이 높아졌다고 밝혔다.

상기의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청소년의 성폭력 경험은 피해경험과 가해경험 모두, 청소년의 전반적인 발달상에 손상을 가져올 수 있으며, 가해자인 피해자인 미래에 더욱 더 성폭력에 노출되는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미래의 가해자 혹은 피해자의 증가와 관련된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이에 관한 예방차원에서 청소년 성폭력에 관한 근원적인 연구가 행해져야 할 것이다.

2. 성폭력 인식의 관련변인

현재까지 전개된 성폭력 관련연구들을 고찰하면 성폭력 인식에 관한 연구가 매우 미미한 상황이다. 따라서 성폭력 발생과 연결지어 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논의하고자 한다. 먼저, 청소년의 성을 들 수 있는데 박은숙(1997)은 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결과에서 남학생이 가해경험이 높고, 여학생이 피해경험이 많았다고 언급하였다. 즉 성폭력 가해경험이 남학생이 8.9%, 여학생이 0.9%, 가해유형을 보면 남학생인 경우 성희롱이 28%, 음란전화가 20%, 성추행이 16%, 성기노출과 강간이 3%, 여학생인 경우는 성희롱이 37%, 성기노출이 25%로 나타났다. 성폭력의 피해경험은 남학생이 4%, 여학생이 22%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피해유형은 남학생인 경우 성희롱이 50%, 음란전화 30%, 성기노출과 강간미수가 각각 16%, 여학생인 경우 성기노출이 45%, 음란전화 25%, 성희롱이 17%이었다고 하였다. 김예정과 김득성(1999)에 의하면 22%의 대학생들이 성폭력을 경험하였는데, 남학생들이 여학생보다 더 많은 성폭력의 피해를 겪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선행 연구(이성은, 1996; 이원숙, 1996; 현혜순, 1997)에서는 성역할 태도가 성폭력 발생 및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즉, 남성 중심적 불평등한 사회구조에 기초해 성폭력이 발생하며, 이는 일상생활의 불평등한 남녀관계가 강화된 것으로 성에 대한 보수적 태도와 성역할 태도 또한 성폭력에 상당히 관련된다고 하였다. 또한 Scully(1990)도 여성에 대해 전통적이고 적대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남성일수록, 여성에게 성폭력을 더 많이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Luna(1989)에 의하면, 청소년들의 부적응 행동을 일으키는 사회구조적, 경제적, 문화적 요인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인은 가족요인이라고 하였다. 가족은 성에 대한 역할모델, 사회적 및 경제적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성에 대한 인식과 성 행동을 형성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지만(Thomton & Camburn, 1987), 청소년들은 성에 대한 정보를 받아들이는데 부모의 역할을 최소한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Hovell, Sipan, Blumberg, Atkins, Hofstetter & Kreitner, 1994). 그러나 가족의 상호관계는 사회경제적 변인보다 성폭력 인식과 발생에 주요변수임이 여러 연구(Finkelhor & Baron, 1986; Finkelhor, Hotaling & Smith, 1990)에서 보고되고 있다. 즉 부모와의 갈등, 친부모 결혼, 장애 혹은 질병을 가진 어머니 직장엄마, 불만족한 가족생활, 친부모와 함께 살지 못하는 경우에 성폭력 가해나 피해를 바람직하게 인식하며, 나아가 성폭력을 직접 행동으로 연결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성폭력 인식과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중 자존감을 들 수 있다. 자존감이란 자기 수용, 자신에 대한 기본적 감정으로 환경 및 주변환경과 관련이 되며 주변환경을 조절하는 적응 행동과 인간의 삶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개념이다. 그러므로 자존감이 저하되면 무력감과 고립감을 초래하며, 절망감과 우울감이 높아져(박재경, 1991) 이에 대한 과잉보상 욕구 때문에 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함께 성폭력이 일어날 수 있다. 또한 낮은 자존감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부모에 대한 독립과 반항의 표시로 또는 상대를 통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성적 행동을 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성에 대한 정체감을 확립하는 시기인 청소년기에 성적 변화에 대한 이해와 자신에 대한 존중감은 성을 욕구해소와 잘못된 문제 해결책의 한 방법으로 악용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부모와의 관계와 가족원간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여 가정의 역동적인 환경이 불안정하면 할수록 청소년들은 그들의 가정에서 파생된 욕구좌절이나 정신신체 증상을, 음란물에 대한 관심과 모방하고 싶은 충동으로 또는 실제 모방하는 행동으로 나타낼 가능성이 많아지며(한국성폭력 상담소, 1997), 이러한 청소년은 폭력물과 음란물을 통해 욕구를 해소하고자 하며 성폭력 등의 비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 청소년의

성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공식영역에서의 실질적인 성교육의 부재와 비공식영역에서 대중매체와 음란물 노출을 지적하면서 남학생의 경우 76.5%가, 성폭력 가해경험자들의 경우는 95.5%가 음란물을 접촉하고 있다고 하였다(한국성폭력 상담소, 1996). 청소년의 성폭력 피해나 원치 않는 임신의 대부분이 성 지식 부재와 잘못된 성 지식으로 인한 것으로 보고(한겨레신문, 1998)하고 있어, 성교육 경험이 성폭력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리라고 추론할 수 있다.

음주, 흡연 경험 유무와 성폭력 경험간의 관련성을 박은숙(1997)은 성폭력 가해경험이 많을수록 음주와 흡연을 많이 한다고 하였으며, 성폭력 피해경험 유무는 음주와 흡연이 관련이 없다고 하였다. 반면, 문애희(1997)는 청소년의 성폭력은 가정적 변인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음주, 흡연, 약물 등은 성폭력 피해자들이 무 경험자들에 비해 많이 경험하였다고 하였다. 청소년에게 있어서 음주는 성폭력 가해자나 피해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변수라고 보여지는데, Testa와 Livingston(2000)은 종단적 연구를 통해 음주는 성적 피해와 관련되어 있을 뿐 아니라, 성적 피해를 당한 적이 있는 여성들은 향후 다른 성적 피해를 경험하기 쉽다고 보고하였다. 다른 선행연구(Abbey 등, 1996 : Collins and Messerschmidt, 1993)도 같은 맥락에서 언급하고 있는데 성폭력이 발생했을 때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가 절반 이상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가해 행위가 일어나거나 피해를 당했다고 밝혔다.

이상의 고찰과 같이 청소년의 성폭력 발생과 그에 대한 인식은 청소년의 성, 자존감, 성역할 태도, 가족 생활 만족도, 약물복용 경험, 음란물 경험, 성교육 수강경험 등의 변인들이 주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학자간에 일관된 보고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요인들의 영향력을 분석하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광주와 전남에 거주하는 남녀 고교생 83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보면 남학생이 417명, 여학생이 418명이었으며,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집단이 90.9%로 나타났다. 부

의 학력은 대졸 이상인 집단이 51.5%, 모의 학력은 고졸이 46.3%이었으며 월 소득은 도시 200-300만원 미만이 43.5%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가족생활에 만족한 집단을 보면 45.6%이며, 약물복용 경험은 37.6%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란물 경험은 70.1%로 나타났으며, 성교육 수강 경험은 일년에 1-2회 정도가 가장 많은 비율을 보였다.

따라서 본 연구대상자는 중류계층의 자녀가 많으며 가족생활에 대해 불만족한 집단에 절반이상을 차지하였다. 이 시기에 음란물 경험이 높고 성교육 수강 경험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고등학생의 성적인 호기심의 증가에 따른 무분별한 음란물 접촉에 대한 지도와 함께 적절한 성교육이 동시에 이루어져야함을 시사해주고 있다.

2. 용어정의 및 측정도구

이 연구에서 활용한 용어의 정의와 측정도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성폭력 경험: 성폭력 경험은 개인의 자유로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범죄로 강제적으로 성적 행위를 하거나 성적행위를 하도록 강요, 위압하는 행위 및 성행위를 유발시키는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를 어느 정도 겪었는지 빈도를 의미한다. 이 도구는 공미혜(1995), 한국성폭력 상담소(1992), 김성희(1998)의 자료를 기초로 하여 본 연구자가 작성하였는데, 시각적, 언어적, 신체적 영역에서의 성폭력을 각각 2문항씩 총 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경험의 빈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이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 α 로 산출하였는데 가해경험에서 .83, 피해경험에서 .81로 나타났다.

2)성폭력 인식: 성폭력 개념을 정확하게 인식하는지를 의미한다. 이 도구는 김율리(2000), 공미혜(1995), 한국성폭력 상담소(1992), 배은경(1997)등이 사용한 척도를 참고하여, 총 8문항을 작성하였다. 문항은 어떤 상황을 성폭력이라고 생각하는지를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문항에서 그렇다고 하는 경우에는 0, 아니라고 하는 것에는 1의 점수를 부여하였다. 이 척도의 신뢰도는 .72(Cronbach α)이었다.

3)성역할 태도: 성역할에 대해 호의적 또는 비호의적으로 반응하는 성향을 의미하며 성폭력이 발생했을 때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와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 이 도구는 공미혜(1995)의 연구를 참고로 구성하였는데 성폭력의 원인을 설명하는 자연적/생물학적 모델, 조직적 모델, 사회문화적 모델, 성역할 이월 모델로부터 4문항을 작성하였다.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진보적인 태도를 의미한다. 이 척도의 신뢰도는.65(Cronbach α)로 나타났다.

4)자아존중감: 자신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나 성공적이고 가치가 있다고 믿는 정도로서, 개인의 환경에 중요한 타인들의 태도에 영향을 받는 일생을 통해 변화하는 역동적인 개념을 말한다. 이 도구는 Rosenberg(1973)의 척도를 사용하여 총 10문항으로 구성하였고 4점 척도화 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 척도의 신뢰도는 .77(Cronbach α)로 나타났다.

5)기타 배경변인: 가족생활 만족도는 가족생활에 만족 혹은 불만족의 정도를 의미하며, 약물복용 경험은 마약, 본드, 환각제 등의 복용여부를 말한다. 음란물 경험은 인터넷이나 비디오, 잡지 등을 통해 선정적인 장면을 보았는지 빈도를 의미한다. 성교육 수강 경험은 학교나 가정에서 성교육을 얼마만큼 받았는지 객관적인 정도를 말한다. 이들 변인은 모두 단일문항으로 구성하여 분석하였다.

3. 자료수집 및 분석

본 조사는 2002년 6월 25일부터 7월 5일에 걸쳐 고교생 2학년 8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그 중 응답이 부실한 경우를 제외한 총 835부를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자료분석은 SAS를 이용하여 신뢰도, 평균, 표준편차, t검증, F검증, 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고등학생의 성폭력 가해/피해 경험

고등학생 남녀의 성폭력 가해경험(표 1)을 보면 시각적, 언어적, 신체적 영역 모두 남녀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신체를 음흉하게 쳐다본 경우', '외설적인 그림이나 글을 보게 한 경우', '외모, 옷차림을 성적으로 평가한 경우', '음담패설을 한 경우', '신체일부를 밀착, 접촉한 경우', '껴안기, 키스, 성행위를 강제로 한 경우' 등의 모든 영역에서 가해경험이 높게 나타났다. 성폭력 피해경험(표 2)은 '신체의 일부를 음흉하게 쳐다보아 불쾌한 경우', '신체일부를 고의로 밀착, 접촉을 당한 경우'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의 피해 경험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박은숙(1997)의 결과와 일치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에서 보듯이 가해경험이 모든 영역에서 남녀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며 남학생이 높게 나타난 점은 특히 남자 청소년들이 성폭력 개념을 제대로 인

〈표 1〉 성폭력 가해경험의 남녀차이

변인	남		여		t
	M	SD	M	SD	
신체의 일부를 음흉하게 쳐다본 경우	1.80	0.89	1.19	0.46	12.55***
외설적인 그림이나 글을 보게 한 경우	1.36	0.70	1.08	0.32	7.42***
외모, 옷차림을 성적으로 평가한 경우	1.59	0.82	1.22	0.51	7.96***
음담패설을 한 경우	1.50	0.82	1.21	0.52	6.06***
신체일부를 고의로 밀착, 접촉한 경우	1.26	0.63	1.13	0.39	3.71***
껴안기, 키스, 성행위를 강제로 한 경우	1.14	0.50	1.05	0.30	3.11**
Total	8.65	3.17	6.87	1.77	10.03***

p<.01, *p<.001

〈표 2〉 성폭력 피해경험의 남녀차이

변인	남		여		t
	M	SD	M	SD	
신체의 일부를 음흉하게 쳐다보아 불쾌한 경우	1.21	0.58	1.56	0.69	-7.88***
외설적인 그림이나 글을 보게 하여 불쾌한 경우	1.22	0.58	1.18	0.45	0.88
외모, 옷차림을 성적으로 평가를 당한 경우	1.28	0.60	1.31	0.61	-0.73
음담패설을 들은 경우	1.47	0.81	1.45	0.71	0.25
신체일부를 고의로 밀착, 접촉을 당한 경우	1.24	0.62	1.36	0.58	-2.99**
껴안기, 키스, 성행위를 강제로 당한 경우	1.12	0.46	1.11	0.40	0.17
Total	7.53	2.74	7.98	2.38	-2.55*

*p<.05, **p<.01, ***p<.001

식하지 못한 채, 일상생활 속에서 성폭력 행위를 쉽게 행사하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하겠다. 또 피해경험은 시각적, 신체적 영역에서 여학생이 높게 나타난 점은 이들에게 대처 기술을 습득할 필요성을 제시해 준다. 이러한 결과들은 청소년 성교육 내용의 방향에 암시하는 바가 크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중요하게 대두된 측면은 남녀모두 피해자와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요즘 청소년의 성폭력 비율이 증가 추세에 있어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현실에서 볼 때, 고등학생들의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하며 이를 위해 먼저 남녀 모두가 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올바르게 정립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고등학생의 성폭력 인식의 차이를 가져오는 변인 분석

고등학생의 성폭력 인식의 차이를 가져오는 변인을 분석(표3)해 보면 성별, 성역할 태도, 음란물 경험, 성교육 경험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즉,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 집단인 경우, 근대적 성역할 태도를 갖는 집단이 전통적 집단보다, 음란물 경험이 없는 집단이 음란물 경험이 있는 경우보다, 성교육 경험이 자주 있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성폭력에 대한 인식 정도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학생은 모든 영역에서 성폭력을 인식하고 있지만, 남학생은 언어적 영역에서 음란전화를 거는 것과 신체적 영역의 모든 항목은 대체로 성폭력으로 인식하지만 시각적 영역(음흉한 눈길, 선

정적인 그림이나 글을 보도록 하는 것)과 일부 언어적 영역(음담패설, 옷차림이나 외모에 대한 노골적인 성적 표현)은 성폭력으로 인식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한 선행연구(김율리, 2000)와 일치한다. 또 여대생들은 일상적인 불쾌한 성적 행위도 성폭력으로 인식한 반면, 남대생은 거의 모든 성폭력 영역에서 여대생보다 낮은 인식을 보여서, 이러한 남녀 인식의 차이가 남대생의 무의식적인 가해, 여대생의 불쾌한 피해경험을 일으킨다고 한 선행연구(김성희, 1998)와도 일치한다. 이상의 결과들은 연구문제 1의 논의에서 언급한 것처럼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성폭력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정립되어있지 않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성폭력 인식과 경험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음을 단적으로 의미한다. 한편, 성역할 태도의 결과를 보면, 청소년 남녀가 보수적인 성역할 태도를 갖을 때 성폭력을 올바르게 인식할 수 없다는 여러 연구(이성은, 1996; 이원숙, 1996; 현혜순, 1997)들과 일치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한편, 음란물 경험이 적은 집단과 성교육 경험이 많은 집단의 성폭력 인식 정도가 높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한국 성폭력상담소(1996)에서 청소년의 성폭력에 실질적인 성교육의 부재와 음란물 노출경험이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견해와 일치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근대적인 성역할 태도를 지닐 수 있도록 하며 음란물 접촉에 대한 지도 및 구체적인 성교육 등이 청소년의 성폭력을 폭넓게 인식할 수 있는 변인임을 제시해준다.

〈표 3〉 배경변인에 따른 성폭력 인식의 차이

변인	구분	N	M	SD	t/F
성별	남자	417	6.27	1.85	-8.73***
	여자	418	7.19	1.10	
지역	도시	417	6.67	1.65	-1.14
	농촌	418	6.80	1.53	
가족생활만족도	불만족	159	6.71	1.58	0.23
	보통	295	6.69	1.63	
	만족	381	6.77	1.56	
성역할태도	전통적집단	473	6.57	1.67	-3.53*
	근대적집단	362	6.95	1.45	
자아존중감	낮은집단	476	6.69	1.70	0.96
	높은집단	359	6.79	1.46	
약물복용경험	없다	519	6.79	1.55	0.78
	담배	28	6.79	1.52	
	술	194	6.65	1.67	
	부탄가스·본드	4	7.25	1.50	
	환각제	4	5.75	2.63	
	담배·술	86	6.58	1.65	
음란물경험	없다	248	7.09	1.24	17.13***
	한두번	356	6.76	1.50	
	여러번	182	6.54	1.73	
	자주	49	5.43	2.35	
성교육경험	없다	114	6.85	1.58	3.48*
	일년에 1, 2회	566	6.80	1.48	
	일년에 3회 이상	102	6.27	1.86	
	자주	53	6.64	2.01	

*p<.05, ***p<.001

3. 고등학생의 성폭력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청소년의 성폭력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영향력(표 4)을 분석하기 위하여 위의 연구결과(표 3)에서 청소년의 성폭력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인 성별, 성역할 태도, 음란물 경험, 성교육 수강경험 등의 변인들에 대하여 다변인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성별($\beta = .23$), 성역할 태도($= -.10$), 음란물 경험($\beta = -.09$) 변인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들 세 변인은 성폭력 인식의 종속변인을 총 10%를 설명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변인들의 영향력을 자세히 살펴보면, 남학생보다

여학생인 경우,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를 가진 집단보다 근대적인 집단인 경우, 음란물 경험이 적은 집단인 경우 성폭력을 폭넓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성폭력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성역할 태도, 성별, 성에 대한 태도, 가족지지로 성역할 태도와 성별이 중요한 변인임을 보고한 남순열(1999)의 연구와 일치한다. 또 김성희(1998)연구에서도 성폭력 인식에 성역할 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는데 남녀대학생 모두 성역할 태도가 진보적인 집단에서 성폭력을 폭넓게 인식하였다고 하였다. 이처럼 여러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성폭력 인식도가 낮으므로 이에 관한 요인을 규명해보는 것이

〈표 4〉 성폭력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영향력

변인	비표준화된 회귀계수(b)	표준화된 회귀계수(β)
성별	0.72	0.23***
성역할태도	-0.05	-0.10**
음란물경험	-0.16	-0.09*
성교육경험	-0.03	-0.01
F	23.35***	
R2	0.10	
DW	1.80	

*p<.05, **p<.01, ***p<.001

dummy처리

성별 : 남-0, 여-1

음란물경험 : 없다-0, 있다-1

성폭력 문제를 예방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며 좀더 이에 대한 심층적인 후속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한편, 청소년들의 음란물 경험이 성폭력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난 결과를 미루어 볼 때, 음란물에 대한 보호와 규제 등을 위해 학교 및 가정에서의 지도와 법적인 장치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고등학교 남녀학생들의 성폭력 경험과 인식에 관해 살펴보고 성폭력 인식에 관련된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성폭력 경험은 가해, 피해경험이 남녀 모두에게 나타났으며, 특히 가해경험은 남학생이 높게 나타난 반면 피해경험은 여학생이 높았다. 둘째, 성폭력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분석한 결과, 성별, 성역할 태도, 음란물 경험, 성교육 경험 변인에 따라 성폭력 인식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성폭력의 인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성별, 성역할 태도, 음란물 경험 등으로 남학생보다 여학생인 경우,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를 가진 집단보다 근대적인 집단인 경우, 음란물 경험이 적은 집단인 경우 성폭력을 폭넓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변인은 성폭력 인식을 10%를 설명해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고교생 남녀 모두가 성폭력 가해/피해 경험이 있으며 앞으로 경험 비율은 더욱 증폭될 수 있다

는 상황을 볼 때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먼저 이시기에 성폭력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학교와 가족 등의 연계를 통한 총체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학교에서는 가정과 교사가 주기적으로 체계적인 성교육 및 성 상담실을 운영하여 예방 및 치료의 역할을 담당하여 또 다른 가해/피해에 직면하지 않도록 해주는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또 가정과 교사는 가해자에게 역할극이나 비디오 시청을 통하여 가해자의 불건전성 및 피해자의 심각한 고통 등을 공감하게 해주며 피해자에게는 고통을 최소화시키고 가급적 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습득함이 필요하다. 가족 중에 부모는 교사와 지속적인 상호교류를 통하여 자녀가 현재 겪는 고충이 무엇인지 끊임없는 관심을 가지며 성에 대한 태도를 올바르게 정립할 수 있도록 부모는 자녀 혹은 교사간에 상호간 의사소통을 지속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둘째,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성폭력 인식도가 낮았다는 측면은 앞으로 성폭력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나아가 직장내 성폭력, 부부폭력 등까지도 행사할 수 있는 잠재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남학생을 대상으로 집중적이고 다양한 성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성폭력을 폭넓게 인식하고 나아가 성폭력이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도록 강조해야 할 것이다.

셋째, 근대적인 성역할 태도가 성폭력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변수로 예측되었다. 남녀가 더불어 공존하며 조화롭고 민주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성 정체감을 바람직하게 확립해야 하는 시기이면서

동시에 성인기에 대한 역할 준비를 행하는 청소년 시기의 성역할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제 7차 교육과정에서 이러한 건강한 성역할 태도를 교육하는 필수교과인 기술·가정교과의 가정영역의 내용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 고등학교 2,3학년 단계에 선택 과목으로 편제되어 있는 '가정과학' 과목을 남녀모두가 이수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청소년들이 음란물에 많이 노출될수록, 성교육 수강경험이 부재일수록 성폭력 인식이 낮다는 점은 우리나라의 취약한 교육여건을 그대로 반영해준다고 하겠다. 청소년기는 성적 호기심과 이성교제에 대한 관심이 높은 시기이지만 이에 관련된 지도는 도외시된 채, 입시위주의 교육만을 지향하고 있으며 여기에 음란물에 대한 규제나 실질적인 성교육 등이 미비하여 성폭력 인식을 낮게 지낼 수 있는 복합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결국 청소년들이 성폭력 가해 및 피해 상황에 쉽게 직면할 수 있게 해준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청소년들이 성폭력 개념을 폭넓게 지낼 수 있는 다양한 성교육 프로그램이 요구되며 동시에 음란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나 방안들이 필요하다.

한편, 본 연구가 가지는 제한점과 이러한 제한점을 개선할 수 있는 후속 연구의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성폭력 인식을 측정하는 도구를 정교하게 개발하여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며 성폭력 인식의 영향력을 분석할 때 포괄적으로 변인을 포함시킨다면 좀 더 심층적인 자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조사대상을 고교생에만 한정하여 분석하였는데 좀더 다양하게 연령층을 포함시키며 성폭력 경험이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폭력 인식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분석한다면 좀 더 구체적이고 광범위한 자료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청소년들이 학교라는 환경속에서 성폭력 경험과 인식에 관해 어느 정도 솔직하게 응답을 했는지는 명쾌하지 않다. 그러므로 후속연구는 이와 관련된 심층면접을 병행하여 이루어진다면 더욱 신뢰로운 자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접수일 : 2003년 2월 5일

□ 심사종료일 : 2003년 3월 10일

참 고 문 헌

- 가족과 성상담소(1995). 청소년의 성의식과 성문화. 가족과 성상담소
- 공미혜(1995). 직장내 성희롱의 실태와 영향요인. 한국여성학, 11, 72-109.
- 김용미, 김현옥(2001). 남녀고교생이 이성교제 단계에서 경험하는 심리적, 성적폭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4), 185-199.
- 김성희(1998). 여성의 신체에 대한 권리와 성폭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4), 17-27.
- 김예정, 김득성(1999). 대학생들의 테이팅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II):피해자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7(3), 187-202.
- 김율리(2000). 청소년의 성폭력 의식에 관한 연구. 전남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 남순열(1999). 한국인의 성폭력에 대한 태도유형에 관한 연구. 한양대석사논문
- 문애희(1997). 청소년 성폭력의 실태에 관한 연구. 숭실대 석사논문.
- 박순주(1996). 어린이 성폭력 피해자의 경험인식에 관한 연구. 이대석사논문.
- 박은숙(1997). 청소년 성폭력의 실태분석에 관한 연구. 청주대 석사논문.
- 배은경(1997). 성폭력 문제를 통해 본 여성의 시민권. 여성과 사회, 8, 51-77.
- 이성은(1996). 직장내 성희롱의 순응과 저항에 관한 일 연구. 이대석사논문.
- 이원숙(1996). 근친 성 학대 가족의 역동성과 사회 복지적 개입에 관한 연구. 강남대 사회과학 논총. 창간호, 185-239.
- 이정권(1998). 청소년 성폭력 실태에 관한 연구. 강남대 석사 논문.
- 한국성폭력 상담소(1992). 일그러진 성문화 새로 보는 성. 동아일보사.
- 한국성폭력 상담소(1996). 청소년 성문화를 통해 본 성폭력 실태; 청소년 성문화를 통해 본 성폭력의 실태 및 대책. 한국성폭력상담소
- 한국성폭력 상담소(1997). 음란물과 청소년 성 비행. 건강한 청소년 성문화 창출을 위한 서울 시민 태도론회.

- 한국여성개발원(1992). **성폭력 예방과 대책에 관한 연구**.
- 한국형사정책 연구원(1998). **성폭력의 실태와 원인에 관한 연구**.
- 현혜순(1997). **친족 성폭력 피해자의 후유증에 관한 연구**. 서강대 석사논문.
- Abbey, A., Ross, L.T., McDuffie & McAuslan, F.(1996). Alcohol and dating risk factors for sexual assault among college women.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20, 147-169.
- Collins, J.J., & Messerschmidt, P.M.(1993). Epidemiology of alcohol-related violence. *Alcohol Health & Research World*, 17, 93-100.
- Finkelhor, D. & Baron, L.(1986). Risk factors for childhood sexual abuse: A review of the evidence. *J.of Interpersonal Violence*, 1(1), 43-71.
- Finkelhor, D., Hotaling, G.I. A., & Smith, C.(1990). Sexual abuse in a national survey of adult men and women : prevalence, characteristics and risk factors. *Child Abuse and Neglect*, 14, 18-28.
- Hovell, M., Sipan, C., Blumberg, E., Atkins, C., Hofstetter, C.R., & Kreitner, S. (1994). Family influences on Latino and Anglo adolescents' sexual behavior.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6, 973-986.
- Scully, D.(1990). **Understanding sexual violence : A study of convicted rapists**. Boston: Unwin Hyman Ltd.
- Small, S.A. and Kerns, D.(1993). Unwanted sexual activity among peers during early and middle adolescence : Incidence and risk factor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5(4), 941-952.
- Testa, M., & Livingston, J.A.(2000). Alcohol and sexual aggression: Reciprocal relationships over time in a sample of high-risk women.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5(4), 413-427.
- Thomton, A. & Camburn, D.(1987). the influence of family on premarital sexual attitudes and behavior. *Demography*, 24, 323-340.